

시론



이준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스마트한 선택과 집중, 전남형 일자리 창출

대통령의 신년사는 대내외 여건에 대한 현 정부의 상황인식과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첫머리에 언급된 내용은 바로 일자리였다. 일자리가 국민 삶의 근간이며, 생계의 기본 수단으로써 최대의 현안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정책 사명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의 중요성은 지난 2020년에만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은 긍정적인 결

과를 가져왔고 이는 수치로도 반영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규 취업자는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에 있어서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부문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이 단기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일회성 효과에 그치는 않기 위해서는 내실을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특히 지역 소재의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체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산업 여건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은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이는 재정 의존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단기적인 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군산은 한때 전국에서 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한 도시였으며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도시경제의 큰 축이었다. 이 두 기업은 군산 지역내총생산(GDP)의 23.4%를 차지하는 핵심기업이었으나, 조선업의 경기 악화와 GM 공장 폐쇄로 군산시민의 1/4 가량이 생계 위기에 봉착하는 등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사태는 대기업에 의존적인 지역 경제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결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의 자생적 성장이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지역의 경우 기간산업과 지역기업 연계를 통해 특화 전략을 세워 함께 창출하고 지켜나가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남은 지역경제에 있어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남은 이러한 산업구조를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이고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밀착형 기업 육성, 기간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영역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

능한 일자리 육성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전남은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에너지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농수산 분야의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장 등 전방위 기간·전략사업과 ICT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회성 일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산업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순천, 목포, 나주를 연결하는 ICT분야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고용률 65.2%, 실업률 1.4%로 나타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도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은 노력을 하는데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 청년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수 있도록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

社說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 반드시 실현해야

"광주가 정치1번지를 뛰어넘어 경제1번지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자리매김하는 변곡점, 의향광주를 넘어 인공지능(AI) 광주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2020년 1월 31일 '사람중심'을 맨 앞에 놓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AI비즈니스에 어울릴 인재 양성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성실한 노력을 요구한다.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AI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AI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향후 10년간 개방형데이터센터, 슈퍼컴퓨팅 파워 등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가 형성되고 AI 창업 1천개, 일자리 창출 7천명, 산업분야별 융복합 AI 인재 5천150명이 양성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한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에게 '특별한 DNA'가 있다고 했다. 바로 소명의식과 도전정신, 창의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집적단지를 조성해 AI 선도국가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스쿨존 제한속도 제각각, 통합 조정 촉구한다

광주 도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들쭉날쭉한 차량 제한속도 때문에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스쿨존 운영과 지정, 교통장비 설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 23일 북구 양산동 한 스쿨존에서 7살 여아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남구 백운동 한 스쿨존의 경우 버섯이 도로 노면에 제한속도 50km라고 적혀 있음에도 기준치보다 최소 10-20km 이상 더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이 쉽게 발견된다. 북구 광주교대 인근 도로 스쿨존에서는 최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차량들이 급정거를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운전자는 "도심에서 시속 60km를 유지하며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가 30km로 확 줄어들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예고 없는 단속에 범칙금을 내긴하지만 같은 스쿨존인데도 제한속도가 제각각이

어려운 것 같다.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시속 20-60km로 다양하다. 일선 자치구와 경찰에 제한속도와 스쿨존 지정, 운영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한속도가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지자체장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다보니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스쿨존 인근 도로를 완충 구간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일정하게 통합 조정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운전자들에게는 스쿨존에서 교통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스쿨존 내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스쿨존에서 무섭게 달려오는 차량으로 깜짝 놀라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문화난장



이세연 양지총합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난 19일 광주문화재단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롤리코스터 시대, 삶의 중심 잡기'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4차산업혁명·AI시대 등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사로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려주고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진지하게 때론 즐겁게 보낸 콘서트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은 결국,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것이었다.

'4차산업혁명'은 이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스, 학교, 학원 또는 대학교 강의에서도 흔히 보이는 단어가 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부산물인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여행 중에도 집 안 물건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람의 일상 패턴을 분석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며 무인자동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복지영역 또한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점자학습 시스템', AI스피커를 활용한 독거노인 감시 서비스, 일본의 요양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람은 '우리 안의 나'일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 어느새 편안함을 위해,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이 아닌 '다음'을 생각해야 하겠다. 현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해 미래를 꿈꾸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을까. 사회의 변화를 의욕적

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따르길 기다리고 있을 수 모른다.

사회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예전 칼럼에서 말했던 것처럼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그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질 것이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 오히려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활용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행동반경뿐 아니라, 생각의 지평까지 넓혀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목적과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체적인 '나'로서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사회의 변화에 두려움과 혼란 느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미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롤리코스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라는 삶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

기고



서계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수의학박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셀프백신 손씻기와 마스크

머지 2층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병 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30일 현재 우리나라 확진 환자는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광주 시 관내 확진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병원체 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감시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충분히 감염병의 진단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4시간 실험실 검사체계를 발 빠르게 운영하고 있다.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약 7시간 안에 1차 검사를 통해 환자 치

료 및 격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신속 진단 및 치료도 중요하지만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신중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경험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은 감기와 매우 유사하다. 가래부터 호흡곤란까지 경증부터 중증까지 호흡기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감염 예방수칙은 개인 위생관리가 최고로 꼽힌다. 질병의 70%는 손을 통하여 감염된다. 실제로 손 부위에 따라 병원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보더라도 손톱 밑, 엄지와 검지사이, 엄지손가락이 가장 취약하다. 손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그러나, 30초 동안 손을 씻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10초 이내 대중 물만 묻히고 만다. 30초 동안 손을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을 경우 손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30초의 기적'이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감염을 통하여 병균을 옮긴다.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할 때 침 등의 작

은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나와 옆 사람의 코로 들어가 감염된다. 보통 이 비말의 크기는 5마이크로미터다. 일반적으로 기침을 한번하면 약 3천개의 비말이 전방 2m내에 분사된다. 기침한번에 약 10만개의 세균이 7.7m를 날아간다. 재채기의 경우는 더 위력적이다. 이때는 약 4만개의 비말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간다는 보고도 있다. 이 비말감염을 피하려면 감염자로부터 최소한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병의 셀프백신 '손씻기와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날카로운 창이라면, '손씻기와 마스크'는 방패이자 이 시기의 최고 명일 것이다.

시보건연구원도 감염병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번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원하지 않은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지만, 광주시의 공적 부분의 예방, 대응과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력이 합쳐져 우리는 이번에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래픽 뉴스

미 연준, 기준금리 1.50-1.75%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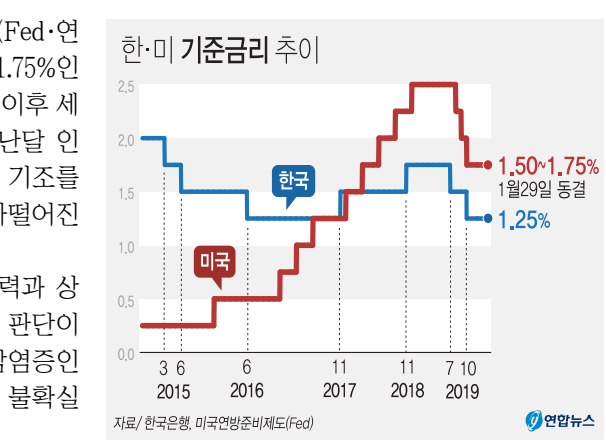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현행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7월말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지난달 인플레이션을 막은 연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는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판단이지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준금리(FFR)를 현행 1.50-1.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적절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최근 몇 달 간 평균적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 지출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 왔지만, 기업 고정투자자 수출은 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며 "12개월 기준 전반적 인플레이션과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현 상태의 통화정책은 경제 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 목표 근방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과 비교해 가계지출의 증가 속도를 '강한'(strong)에서 '완만한'(moderate)으로 바꾼 것 외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다. 이번 금리 동결 역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난달 연준은 향후 금리 전망을 모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 중 13명이 올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4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는 등 당분간 동결 기조를 갈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채움부 650-2080 사진부 650-2080 서울실 650-2006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